

기고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이 최고의 안전

작고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최근 휴대전화,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일상 곳곳에서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바로 그 예이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전과 방전 효율이 뛰어나지만, 충격이나 고온·과충전 상황에서는 내부 단락(합선)이 일어나 급격히 발열하고, 순식간에 폭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OO지역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 내부까지 번져 큰 재산 피해를 남겼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첫째 정품 충전기 사용 - 값싼 호환 충전기는 과전류 차단 장치가 부족해 화재 위험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충전 중 무방비 방치 금지 - 장시간 자리를 비운 채 충전하거나, 취침 중 충전은 매우 위험하다. 코드를 뽑아 과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고온 환경 피하기 - 배터리는 여름철 차량 내부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넷째 충격·변형 배터리 사용 금지 -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충격을 받은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교체해야 한다.

다섯째 충전 중 가연물 주변 정리 - 주변에 이불·종이·옷가지 등이 있으면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또한 119에 신고 후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사고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점검해야 생활 속 편리함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곡민기

하루의 시간은 매우 짧다. 때문에 하루 정도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지만 1개월이라는 성(城)은 보통 30일 내지 31일이 모여서 이뤄진다. 2월은 제외하고, 이러한 1개월이 12번 모이면 1년이 된다.

1년이라는 햇수들이 모여서 20대가 되고, 450대의 중년이 되고, 65세 이상의 노년이 된다. 각자의 상황에 따른 수명을 다하면 알 수 없는 그 여단가로 사라져 버린다. 이처럼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피해 보려고 인류는 한없는 노력을 해왔는지도. 좋은 약들을 먹는 등 각종 치료도 받아 보면서, 운동 또한 열심히 하고.

더불어 각종 바이러스 등 다양한 질병들을 옮기는 티끌들을 피해 다니기도 하지 않았던가. 물론 작금의 상황에서도 각자 처해 진 환경에 따라 그에 적절한 행위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오랜 세월 전의 황제나 왕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수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무서운 광기를 부리기도 하지 않았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더더욱

던가. 하지만 결국은 모두 사망했다. 이런 무서운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서 축적된 현상들이 종교가 아닐까. 수많은 미신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같은 상념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두려움의 암흑 터널들을 헤매는 현상의 유지 같기도 하다. 그 여단가로 떠나버리는 인생이. 인간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 봐야 100년 정도다. 2009년 UN은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서 미래 사회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시대라 했다.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말한다. UN은 2010년 기준 34만 3천 명인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320

만 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할 거라 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024년 12월 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행정안전부). 100세 이상 인구의 경우는 2012년 2,386명이던 것이 2030년 1만 명, 2040년에는 2만 명에 이르게 될 거라 했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지 않을까. 요양원 등에 누워서 그저 호흡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건강과 물질 등을 비롯해 삶의 운영을 위한 요건들이 골고루 갖춰진 상태에서 장수를 누려야 진정한 삶이 아닐까.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가슴에 와닿지 않는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매일 의미 있게 행복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오늘의 이 순간은 내일에도 똑같이 오겠지만 이미 어제의 그 날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만큼 함께하는 순간들과 잘 지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건강에 유념하면서. 쇼펜하우어도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고 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은 어리석다."라고도 했다. 이를 유념하면서 현재를 행복하게 지내면 어떨까. 특히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니까 더더욱.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권리이다.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 주최 측에서 질서유지인을 두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 경찰에서는 대규모 집회나 행진 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

회 시위 권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집회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고의적으로 넘어 시위를 하는 등 경찰의 최소한의 질서유지 행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오랜 기간 우리 시민들이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에 집회 시위 문화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폴리스라인은 꼭 지켜야 한다.

또한 집회 시위 시 과도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야기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음은 시민들의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현장에

서 소음측정을 하고 기준치 이상일 경우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집회 시위 현장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회 주최자들은 확성기 등의 볼륨을 낮춰 사용하는 등 스스로 자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하기 위해 폴리스라인 준수와 함께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흥경찰서 경비안보과 경감 한정래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음력 9월 4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entry includes a zodiac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advice or prediction.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